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동향과 과제

‘개방전략’ 수정 잇따라 WTO·FTA 병행 또는 FTA로 선회

특정 국가·지역의 배타적관세 철폐, 지난해 5월 현재 184개 협정
한국 칠레가 유일, 생활 질·소득향상 및 농산물안전성 확보 등 고려해야

세계무역기구(WTO)를 ‘국도’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FTA)은 ‘고속도로’이다. 신호등과 속도제한이 없는 무역의 고속도로이다. WTO는 다자주의가 원칙이다. 협상이 지체된다고 해도 전체 가맹국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국가에 상대적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FTA는 다르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국도를 달리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국가와 무역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대폭 지체되고 있다. 2003년 3월말에 농업모델리티를 확립하고, 전체 협상은 2004년 12월말까지 타결한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의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

서도 모델리티 확립에 실패하는 등 협상일정이 대폭 지체되고 있다. 이 대로라면 2006년말이 타결시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은 WTO와 FTA를 병행하거나 FTA 체결로 선회하는 등 개방전략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최근의 FTA라는 고속도로 건설동향을 살펴보고, FTA 시대에 대비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FTA 체결 주의

FTA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배타적인 관세철폐 등을 통하여 무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FTA에서 무역자유화란

WTO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의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관세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 양자간 및 지역내 국가간 FTA를 체결, 관세 및 수입제한을 철폐하고, 더욱이 투자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여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이 현저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FTA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FTA 체결수는 1990년까지 30개 협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2년 172개 협정, 2003년 5월 현재 184개 협정에 달하고 있다.

표 1.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WTO 통보기준)

| 1970년 | 1990년 | 2002년 | 2003년 |
|-------|-------|-------|-------|
| 6 | 31 | 172 | 184 |

주요 FTA 체결동향

현재 FTA 체결은 3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주요 관심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2005년에는 남북미대륙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금년 5월에 동유럽 10개국을 새로운 가맹국으로 맞이하면서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국가연합(ASEAN) 등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 다음이 ASEAN이다. ASEAN은 2015년까지 10개국의 단일시장을 구축하면서 중국, 일본, 남아시아, EU 등과 FTA를 준비하고 있다.

남북미대륙

미국은 현재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참가하는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중심으로 하면서 2005년 남북미 34개국이 참가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는 별도로 2003년에는 싱가포르, 칠레, 중남미 4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과 FTA를 체결하는 등 FTA 체결로 급선회하고 있다.

또 남미대륙에서는 남미단일시장을 겨냥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의 관세동맹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즈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되는 안데스공동체가 2003년 12월 FTA를 체결하였다. 발효후 15년간에 농산품과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따라서 이미 MERCOSUR와 FTA를 체결한 칠레를 포함하면 남미대륙을 거의 망라하는 10개국, 3억5천만명의 FTA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유럽연합(EU) EU는 현재의 15개 가맹국에서 2004년 5월에 동유럽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25개국으로 확대된다. 또 EU는 아프리카, 카리브해연안국가, ASEAN, MERCOSUR 등의 FTA 체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김태곤
농촌경제연구원 정책분석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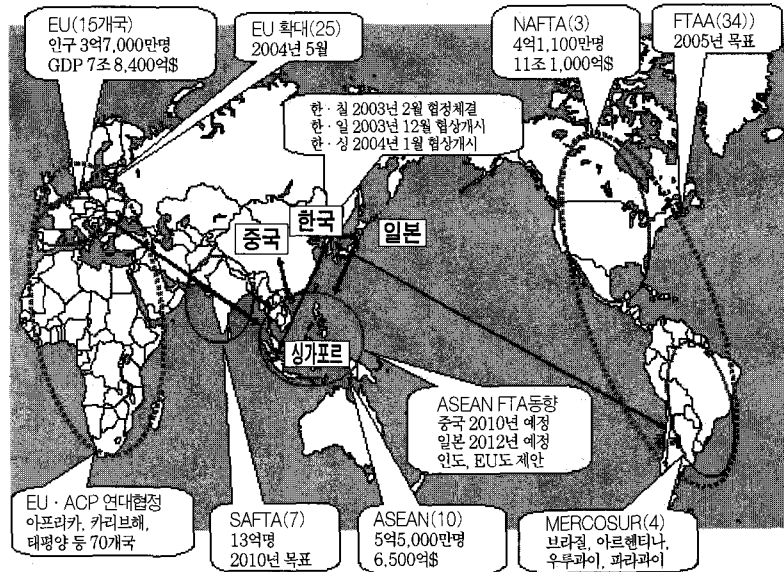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자유무역협정 체결동향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EAN은 2010년까지 역내 단일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SEAN에 대해서는 중국, 일본이 경쟁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인도, EU 등도 FTA를 제안하고 있다.

ASEAN 가맹국으로는 인도네시아가 파키스탄과 2003년 12월 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양국은 2005년 6월까지 특혜관세 체도를 창설하고 2010년까지 FTA 체결에 합의하였다. 인도도 태국 등과 FTA 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양국은 2003년 10월에 2010년까지 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남하정책에 대한 인도의 동방정책의 일환이다. 향후 남아시아와 ASEAN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시아지역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은 2004년 1월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 체결을 합의하였다. 우선 2006년 1월부터 역내 관세인하를 시작하여 2010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명의 자유무역지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FTA 확대의 대응과제

우리나라의 FTA 협상 동향

세계 각국이 FTA로 선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서명한 칠레와의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동향과 과제

FTA가 유일하다. 또, 정부간 협상은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일본, 그리고 금년 1월의 싱가포르 등 2개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를 보면 중국은 동남아를 비롯하여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호주, 브라질 등과 FTA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일본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와의 협상을 거의 마무리하였고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협상중에 있다.

FTA 시대에 편승하여 FTA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FTA 체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FTA라는 급격한 시장개방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는 그룹에서 손실을 받는 그룹으로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즉 산업별, 품목별 손실과 이익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을 비롯하여 농정 전체를 FTA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대응 과제

FTA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세나 제한적인 통상규칙을 철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GATT 24조).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체결사례를 보면 NAFTA나 일본·싱가포르 FTA에서는 제외 품목이 있고 EU·멕시코간에는 재협상품목도 설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금년 2월 8일에 체결한 미국·호주간 FTA에서는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18년간으로 설정

하는 유연한 예외조치를 두고 있다.

FTA 시대에 대비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FTA를 통하여 농업 부문이 어떻게 생활의 질과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되 협상 상대국에 따라 품목별 사정을 검증,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의 장기화 또는 제외 품목이나 재협의 품목 등 예외조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역확대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문제이다. 상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이나 제3국의 우회수입 등에 대비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가공품의 경우 우회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식품안전기준을 엄격히 하고 검역조치강화 등 식품안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육성된 품종이 국외로 반출, 생산된 농산물이 역수입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 등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비한 품종보호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국내에서도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무분별한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은 국내 농산물의 수출기회도 될 수 있다. 해외시장정보 수집이나 시장조사, 국내산 농산물 홍보 등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업정보**